

도시사대학 설립의 취지(발취)

돌이켜보면 벌써 20 년도 더 된 일이지만 에도막부 말기, 외교가 절박하여 민심이 동요하던 때 미력했지만 나는 해외 유학의 꿈을 품고 탈번하여 하코다테로 가서 드디어 1864년 7월 17일 밤 몰래 국법을 어기고 미국 상선에 올라탔다.

선원이 되어 노동에 종사한지 약 1년 만에 드디어 미국 보스턴에 도착했다. 운 좋게도 미국의 박애심이 큰 분의 도움으로 인해 애머스트 칼리지에 입학한 후 앤도버 신학교를 다니며 10년 정도 고학을 했다.

이렇게 미국의 사물과 제도가 성대한 모습을 보고, 뛰어난 인물과 인격자를 접하고 의견을 듣고 해보니 미국 문명은 결코 갑자기 또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원인이 모두 국민을 열심히 교화했다는 점에 있음을 깨닫고 처음으로 교육이 국가의 성쇠에 깊이 관여함을 확신했다. 그때부터 마음속으로 이 몸을 교육사업에 바치겠다고 결심했다.

1874년 말에 오랜 기간 품어온 하나의 뜻을 마음에 안고 10년도 넘게 꿈에서까지 그리워했던 고향으로 귀국했다.

그 후 1875년 11월 29일에 도시사 영학교를 설립했다. 이것이 현재의 도시사 설립의 시작이다.

도시사의 목적은 단순히 일반적인 영학을 가르치는 것뿐 아니라 덕을 갈고닦고 품성은 고상하게, 정신은 올바르게 강하게 하기 위해 힘쓰고, 단지 기술이나 재능이 있는 인물을 육성할 뿐 아니라 소위 '양심을 수완으로 운용하는 인물'을 육성하는 데 힘써왔다. 게다가 이러한 교육은 한쪽으로 치우친 지식의 교육만으로는 결코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다만 신을 믿고 진리를 사랑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정이 두터운 그리스도교의 도덕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믿었기에 그리스도교주의를 덕 교육의 기본으로 삼았다.

정부의 손으로 설립된 대학이 실로 유익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국민의 손으로 설립된 [사립] 대학이 국민들에게 참으로 큰 감화를 주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학생이 본인만의 기질을 발휘하고 자치, 자립하는 국민을 양성한다는 점은 그것이야말로 사립대학이 가진 특성이자 장점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교육이란 인간의 능력을 발달시킬 뿐만 아니라 모든 능력을 골고루 발달시켜야 한다. 아무리 학문과 기술이 뛰어나더라도 그 사람이 의지가 약한 인물이라면 한 나라의

운명을 짊어질 인물이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만약 교육 방침의 목표가 빗나가서 한 나라의 청년을 일그러진 틀에 끼워 넣어 편향된 인물을 양성한다면 교육이 그 나라를 멸망시킨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한 국가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두세 명의 영웅의 힘이 아니다. 실로 한 국가를 형성하는 교육이 있고, 지식이 있고, 품성이 높은 분들의 힘이 그 바탕에 있어야 한다. 이들은 ‘한 국가의 양심’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나는 이 ‘한 국가의 양심’이라고 할 분들을 양성하고자 한다. 우리의 목적은 사실 여기에 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1 년의 계획은 곡물을 심는 데 있다. 10 년의 계획은 나무를 심는 데 있다. 100 년의 계획은 사람을 심는 데 있다.’

생각건대 우리의 대학 설립과 같은 사업은 실로 국가 백년대계이며, 어떻게 해서든 착수해야 하는 사업이다.

우리들의 오래전부터 품어온 뜻은 상기와 같다. 이러한 뜻을 품은 우리들이 한편으로 스스로를 돌이켜보면 마치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드는 것과 닮았다. 특히 나 같은 자는 정말 미력하고 학식도 얕아서 국가를 위해 온 힘을 바치겠다 공언해 놓고서도 내심 약간 주눅이 들 때도 있다.

그러나 20 년 동안 줄곧 품어온 뜻을 묵살할 수도 없다. 우리나라의 시대의 급선무를 묵살할 수도 없다. 나아가 지인들과 친구들의 협조도 묵살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시대의 추세와 환경이 호전된 것에 힘입어 나의 평생 숙원인 이 일대 사업, 즉 대학 설립을 위해 이 한 몸을 바쳐 일하고자 한다. 신이 우리의 뜻을 축복하고 또 사회의 식자들이 우리의 뜻을 돕고 우리의 뜻을 실현시켜줄 것을 바라 마지않는다.

1888 년 11 월
도시샤 대학 발기인
니지마 조